

2000 - 2000 2월 24

제2차 2000년 법정 운영위원회

일시: 1999.10.30(토) 오후 2시

장소: 정대협 교육관

참석대상: 윤정옥(위원장), 김윤옥, 정진성(부위원장), 조시현(법률위원회), 강정숙, 여순주, 양현아(진상규명위원회), 지은희(기획위원회), 김혜원(재정위원회), 신혜수, 정숙자(국제협력위원회), 양미강(총무)

<보고>

1. 도쿄 국제실행위원회: 1999.10.2-3, 동경 / 별첨자료
2. 각 위원회별 보고:
3. 기타

<안건>

1. 자료집 기획 및 확정
2. 워싱턴 국제자문단회의: 1999.11.10, 미국 워싱턴
3. 법정시나리오 구성안
4. 2000년 법정 현장 검토: 10월 말경에 일본에 회신하기로
5. 각 위원회별 향후 일정 및 세부안 논의

<기타>

1. 일본의 '위안부' 보상법안 검토
2. 국민기금의 우스끼 게이코 입국금지 해제조치와 국민기금 동향

도쿄회의 1999.10.1 -10.2 작성자 조시현

다음은 윤정옥선생님이외의 한국측 참가자인 김윤옥, 지은희, 조시현이 회의장에 도착한 오후 3시 45분이후의 회의결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전체회의 결과는 국제실행위원회 사무국의 VAWW-NET Japan의 히라카와 나옴씨가 정리하기로 되었습니다.

의제 채택(아래의 정리는 순서와 무관함)

I. 법정 자체

II. 진상조사 (10.2. 오후 3시 논의하기로)

III. 현장/규약 (10.2. 오후 1시)

IV. 오늘날의 전쟁범죄

V. 시간표(Time Frame)

VI. 재정 및 홍보

I. 법정

(1) 참가자수 예측

한국 100-150, 북한 5, 중국 10, 대만 15, 필리핀, 20, 인도네시아 10, 말레이시아 5, 네덜란드 10, 일본 ? 등 330 참가자와 기자단 100으로 대략 500명 정도의 예상에 바탕하여 장소를 섭외하기로 함. 12.8-10행사에는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장소를 12.11에는 500명 수용장소를 분리물색함.

(2) 법정 공용어: 영어, 한국어, 일본어로 하고 다른 언어가 필요한 경우 “귓속말통역”(whisper translation)하기로 함.

통역비용은 3개 공용어에 대하여 일일 각 4명씩 12명에 대한 것을 충당하기로 하고 다른 언어의 경우는 자원봉사에 의존하기로 함.

(3) 판사, 검사의 추천

국제자문위원회(IAAC)의 자문을 받은 인디아가 마련한 명단에 대한 구두설명을 들음.

판사: Françoise Hampson (유엔 인권소위), Belo 주교, Danielle Mitterrand 등 거론. 한국측이 추천한 한승헌 전감사원장을 받아들임.

검사: 한명의 검사장(Chief Prosecutor)와 각국에서 뽑은 7명의 검사를 두기로 함.

검사역할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하여야 하는 일(job specification)을 명시하기로 함 - 이들은 최소한 한번의 사전 검사회의를 갖고 역할을 논의하며 피해국 방문과 기소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법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며 기소를 하고 기소요지를 작성한다.

검사장에는 11월말까지 우선 Asma Jahangir(유엔 인권위 자의적 살해 특별보고관)을 접촉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Rishmawi를 접촉한다.

한국은 박원순 변호사, 일본은 Tina Dolgopol 교수, 필리핀은 Merlin Magallona를 임명하기로 함.

다른 나라에서 검사를 지칭하지 않을 경우 명단에서 선임하기로 함.

(4) 법정의 전개

구체적인 결론을 낼 단계는 아니나 한국측의 시나리오 제시에 대체적으로 호응하는 분위기
있음

2. 조직개편

한국측의 여러 차례에 걸친 문제제기 끝에 한국측 안을 그대로 수용

3. 오늘날의 무력충돌중의 여성폭력 문제: 범정부막후 하루 국제회의 개최하기로 함.

4. 기금마련

국제조직위원회에 기금마련을 위한 소위원회를 두기로 한다.

한국 100,000불(미화), 일본 200,000불, 인다이 나머지 마련키로 함.

일본은 장소와 문서비용을 한국은 통역비용을 대기로 함.

5. 시간표

Ascent는 VAWNET-Philiphine을 10월 둘째주에 출범시킴

1999.11 판검사에게 초청장발송

1999.11.9-10 워싱턴회의

1999.11. 검사 판사 선임 과정 완료

1999.12.11-12 도쿄 심포지움

2000.3월말 소지량 상하이 포럼 (법정의 홍보를 위해 가급적 이 때에 검사합동회의(검사
포함 참가자 인원 20-25명)를 소집할 것을 검토한다)

2000.3. 유엔 인권위원회 시작

2000.4. 각국 법정자료 완성(1차) - 2000년 학생법정개최

2000.6. 검사모임

2000.8. 유엔 인권소위원회

2000.9. 법정자료 최종완성(영역작업 포함)

2000.9. 기소장완성(목표)

2000.10. 기소장 발표 - 최종점검 - 기자회견

2000.12.7-11

6. 홍보

포스터 응모/경연대회(웹페이지에 올릴 것) - 공통포스터보다는 공통 문구를 마련하여 각
국이 선정한 포스터를 모아 법정 주변에 전시할 것.

VAWNET-Japan은 웹사이트를 구축할 것.

내년 유엔 인권위: 법정홍보와 운동의 목적상 내년 3-4월 인권위(8월 인권소위)에서의 활
동이 중요. 이를 위해 11월 워싱턴회의 등에서 전략을 논의하기로 함.

법정 소개책자(brochure)를 11월전에 마련키로 하고 나오미씨가 초안을 보내기로 함.

기자들을 접촉할 것

7. 헌장/규약

국제자문위원회의 바히다가 작성한 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일본측 안과 한국측 안을 놓고

논의함.

우선 현장으로 명칭을 정하고 전문과 조문화하는 형식에 합의함.

각각의 조문을 검토하는 작업을 시작하였으나 시간과 전문성 등이 문제가 되어 바히다안의 전문부분을 참작하여 한국측이 일본측안을 감안 10월 말까지 수정제안을 하기로 함.

8. 총평

사전준비가 미흡하여 몇몇 항목에 대한 논의가 피상적이었으며 특히 판사검사후보 개개인에 대한 정보를 전적으로 인다이에 의존하게 되었음. 회의 중 인다이에게 자세한 인적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될 것을 요구하였으나 후속작업이 필요함.

11월 워싱턴 회의가 법정의 실제적 구성에 있어서 아주 중요함에 따라 윤정옥 선생님과 신혜수 선생님(또는 단독)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이 한국측 참가자들 모두의 의견임.